

# 삼위일체 신관의 신학적 의미와 목회적 적용

오진철  
〈조직신학·조교수〉  
jincheolo@kbtus.ac.kr

## I. 서론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이 아니라 삼위일체 신관이다.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한다. 삼위일체 개념은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유일한 기독교의 신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 신관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준이 되고 기독교의 고유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근본적 신학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관이 삼위일체 신관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신관의 신학적 중요성은 목회의 현장이나 성도의 일상적 신앙생활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단지 삼위일체 신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신학적 개념으로 치부되고, 불가해하지만 믿

음으로 받아드리는 하나의 교리로 간주한다. 실상 교회 공동체는 이성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유일신관을 믿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에게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인지 유일신관인지를 물으면, 많은 경우 혼란에 빠진다. 단순히 둘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두 신관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 삼위일체 신관이 갖고 있는 중요하고도 유용한 신학적 의미들이 목회의 현장과 교회 공동체의 삶에는 거의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삼위일체 신관의 신학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일선 목회자들의 목회현장과 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삼위일체 신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동떨어진 난해한 사변적 교리의 자리를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의미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얼마나 더 이론적이고 정교한 삼위일체론을 세울 수 있는가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표현은 논리적 설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동그라미이면서 동시에 네모라는 어떤 존재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논리적 사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Divine Mystery)”에 해당되는 영역이다.<sup>1)</sup> 다니엘 밀리오리는 “기독교 신학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 시작하여 그 신비와 함께 계속되고 그 신비로 마무리”된다고 말한다.<sup>2)</sup>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은 이론적 설명의 영역이라기보

---

1) Stanley J.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69.

2)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56.

다 오히려 모든 기독교 전통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영역이고 실천적 적용의 영역으로 발전되어야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문자적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은 설령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할지라도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삼위일체론이 모든 개념을 넘어선다고 생각할 경우 그것은 한층 더 무의미”하다고 비평한다.<sup>3)</sup> 중요한 논점은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더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기보다, 오히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어떻게 실천적 적용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sup>4)</sup>

삼위일체론의 실제적 의미와 목회적 적용을 위해서 나는 스탠리 그렌츠와 밀리오리, 그리고 김균진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간다. 특히, 침례교 신학자인 그렌츠는 비록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신학적 유산은 침례교 전통에서뿐만이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와 같은 다른 전통에 속한 학자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고 인용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sup>5)</sup> 그렌츠는 삼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본질상 관계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관계적 삼위일체 개념을 인간본성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먼저 삼위일체론의 생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삼

3) Immanuel Kant,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trans. by Gregor Mary J. (New York: Abaris, 1979), 33.

4)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 논문의 목적은 정합적 삼위일체론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그렌츠는 캐나다 벤쿠버의 캐리/리젠트(Carry/Regent) 대학에서 가르쳤고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노던 침례 신학교(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치다가 5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그렌츠의 책은 우리말로 총 8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책은 신옥수가 번역한 *조직신학*이라 할 수 있다. 참조하라, 스탠리 그렌츠, **조직신학** 신옥수역 (파주: CH북스, 2019).

위일체론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필리오케 논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삼위일체론의 중심개념인 경제적 삼위일체와 본래적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삼위일체론은 경제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하여 본래적 삼위일체로 나아가야 하며 그 역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논의한다. 셋째, 목회현장과 교회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의 신학적 의미에 대하여 기술한다. 삼위일체론이 난해한 이론적 사변의 자리를 벗어나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이해할 때 올바른 삼위일체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삼위일체론은 신비하고 낮은 사변적 교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 II. 삼위일체 신관의 생성 배경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성서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성서에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개념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간혹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개념에 대하여 애써 여러 성서적 논거를 들고 있지만, 그 논리적 근거는 빈약하다 할 수 있다.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신학적 개념인 “하나의 본질이면서 구분된 세 인격들(one in essence, distinguished in three persons)”이란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성서는 그 어떤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에서(창 1:26), 성서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 삼위일체가 아닌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온전히 받아드린다 하더

라도 우리라는 말이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는 미약하다. 우리는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삼위일체의 본질적 의미인 하나님은 한분이시고 동시에 세분이라는 의미를 그 본문은 담고 있지 못하다. 또 흑자는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언급한 것은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후 13:13). 그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삼위일체의 신학적 의미인 하나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세 위격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같은 구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보다 더 분명해진다. 기독교와 달리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이 아니라 유일신관이다. 동일한 경전을 기초로 각각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지만 서로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성서 안에 삼위일체 신관을 보증할만한 명백한 근거들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sup>6)</sup> 예수 그리스도의 제지들을 포함하여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도 실상 명백한 삼위일체 신관을 유지했다기보다, 유대교 전통의 영향 아래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유일신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정교한 신학적 정리의 형태가 아

6) 기독교는 비록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적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근본적인 신관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이고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으로서 전혀 다른 신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신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은 비록 동일한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반면에, 유대교는 그 예수를 신성모독의 죄인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오진철, **교회론** (서울: 누기출판사, 2020), 26.

닌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교회의 교리로서 삼위일체 신관이 등장하여 명시적 교리로 확립된 것은 4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이다. 고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였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 삼위일체 교리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니케아 회의는 A.D. 325년에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A.D. 381년에 있었지만 이 두 회의를 함께 붙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니케아 회의 전문을 그대로 받아 드리고 그 뒤에 교리적 내용을 확장시켜 첨부하였기 때문이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삼위일체에 관한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난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sup>7)</sup> ‘성자로부터’라는 뜻의 필리오케(*Filioque*) 논쟁<sup>8)</sup>이 나중에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신앙의 교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렌츠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적인 이해의 핵심이고 성서의 중심적 메시지를 견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sup>9)</sup> 흑자는 삼위일체 교리가 후대 교회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것은 모든 신학적 교리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생성하고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는 사실이다. 비록 삼위일체 교리가 교부시대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생성된 후대의 신학적 산물이라 할지라도, 성서적 원리에 분명한 바탕을 두고 있고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이해하는데 있어

---

7) Jaroslav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201.

8) 필리오케 논쟁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하게 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다. 필리오케 논쟁에 대하여서는 다음절에서 다룬다.

9)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70.

서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삼위일체론의 생성 배경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도대체 이 삼위일체 신관이 고대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던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인리히 오토는 삼위일체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 됨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한다.<sup>10)</sup> 삼위일체 신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변적 신학개념이기 이전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김균진도 이점을 지적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교회의 신학자들이 재미로 만들어 낸 사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한다.<sup>11)</sup> 니케아 공의회를 기초를 놓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만일 예수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인 본질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2)</sup> 즉, 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정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숙고하였고 그것이 삼위일체의 정교한 교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구원론이 삼위일체론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순수한 혹은 사랑이 충만한 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선한 인간 예수의 죽음이 과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어 큰

10) Heinrich Ott, *Die Antwort des Glaubens* (Stuttgart: Kreuz Verlag, 1972), 114.

11)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240.

12)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76.

흉악한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흉악범을 너무 사랑해서 법정에서 받은 사형선고를 대신 받겠다고 선한 의지 혹은 사랑의 의지적 결단을 하였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법원의 선고와 상관없이 자식의 죄를 대신해 희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과연 그 흉악범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고대교회의 지도자들과 공동체 안에 단지 한 인간의 선한 의지 혹은 사랑의 의지를 통한 십자가 희생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구원을 과연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랑이 많은 한 인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정죄와 심판의 당사자인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기에 이르렀다.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참으로 구원사건이라면, 또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가 참으로 구원의 역사라면 그것은 삼위일체론”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만 한 것이다.<sup>13)</sup>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본질상 죄로 타락된 존재이기에(롬 3:10),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초대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다(막 15:39).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사건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무시간적인 영원한 존재에 대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그의 계시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sup>14)</sup> 이와 같이 삼위일

13)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246-47.

14) Ibid., 241.

체론의 정교한 교리는 피조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고백과 설명 가운데 등장한 것이다. 구원론적 관점에서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 시도는 경세적 삼위일체와 본래적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

### III. 경세적 삼위일체와 본래적 삼위일체

경세적 삼위일체(economical trinity)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과정 가운데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반면에 본래적 삼위일체(essential trinity)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본질상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였는지에 설명이다.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본래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sup>15)</sup> 그러므로 경세적 삼위일체는 구원의 “경륜적 삼위일체” 혹은 “계시의 삼위일체”라고 부를 수 있고, 본래적 삼위일체를 “본질의 삼위일체”라고 부를 수 있다.<sup>16)</sup>

경세적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피조물의 구원의 역사가운데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각각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원, 성령의 성화로 나타난다.<sup>17)</sup>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사역은 각각의 고유한 위격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위격들이 서로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사역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창조는 성부 하나님 자신의 고

15) Ibid., 246.

16) Ibid.

17) James Leo Garrett, Jr.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283.

유한 영역이지만, 성자와 성령이 공동으로 그 창조사역에 참여한다. 구원의 역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영역이지만, 성부와 성령이 공동으로 그 구원사역에 참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성화는 성령의 고유한 영역이지만, 성부와 성자가 공동으로 그 성화사역에 참여한다. 한편, 본래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정착하게 된 교리로서 두 가지 고유한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 본래적 삼위일체 사역은 “성부로 인한 성자의 출생(generation)”이고, 두 번째 본래적 삼위일체 사역은 “성부와 성자를 통한 성령의 내어쉴(procession)”이다.<sup>18)</sup> 주지할 것은 삼위일체론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대한 정합적 설명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는 경세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삼위일체는 언제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서의 구원역사의 복음 이야기에 그 근거와 한계를 두어야 한다.<sup>19)</sup>

삼위일체론이 사변적 논쟁으로 빠져들지 않고 실제적 의미와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세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하여 본래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그 역은 불가하다. 밀리오리는 “올바른 삼위일체 신학은 먼저 사변적으로 영원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를 상정하고, 그 후에 계시와 기독교 경험 안에서 그 증거를 찾지 않는다. 올바른 삼위일체 신학은 성서 안에 증언되고 교회의 시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된 계시와 구원의 역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20)</sup> 실상 우리는 창조 전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삼위사이에 어떠한

---

18)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88.

19)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61.

20) *Ibid.*, 62.

관계가 형성되었고 존재했는지에 대하여 그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필리오케 논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는 중요한 논쟁이었지만, 사실상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확증될 수 없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었다고 사료된다. 필리오케 논쟁의 핵심은 성령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고,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기점으로 A.D. 1054년에 서로는 상대방을 파문하기에 이르렀고 천년의 세월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내온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난센스의 논쟁인 이유는 그 누구도 필리오케 논쟁의 핵심인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왔는지 혹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인식론적으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성서적으로도 확증할 근거가 없는 소모적 논쟁이 교회의 파괴적 분열을 가져왔다. 성서는 그 어디에서도 성자가 성령으로부터 나왔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또한 신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필리오케 논쟁에서 나타나는 본래적 삼위일체는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단일신론 혹은 종속론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성부 없이는 성자의 출생이나, 성부와 [성자 없이는] 성령을 내어شم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성자의 출생, 성령의 내어شم은 성부의 근원성을 전제”<sup>21)</sup>하고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필리오케 논쟁의 가장 큰 근본적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였다. 경세적 삼위일체론으로부터 기초로 하여 본래적 삼위일체를 추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대한 사변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김균진은

21)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255.

전통적인 본래적 삼위일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사랑의 고통은 하나님의 내재적[본래적]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평한다.<sup>22)</sup> 삼위일체론을 구원의 경륜 속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추론하지 않은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건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원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추론해야하며 경세적 삼위일체가 본래적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어야만 한다. 본래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상가들의 사변적 놀이가 아니다. 본래적 삼위일체는 경세적 삼위일체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밀리오리는 이점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론적 신학의 논리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된 사랑[경세적 삼위일체]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존재의 심층에 있는 삼중적 사랑의 궁극적 기반[본래적 삼위일체]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3)</sup> 즉, 본래적 삼위일체는 필연적으로 경세적 삼위일체로부터 이해되어야만 한다.

경세적 삼위일체로부터 본래적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십자가 사건이 삼위일체론의 기초이다. 김균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죄의 심판을 자신이 당하는 대신 피조물에게 구원을 열어 준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원한 내적 삼위일체의 삶”에까지 다다른다고 말한다.<sup>24)</sup> 십자가 사건은 성자 예수의 단독사건이

---

22) Ibid., 254.

23)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62.

24)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248.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이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결정된 사건이고, 성자 예수의 십자가 희생 가운데 성령으로 삼위가 함께 고통당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세적 삼위일체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본성 자체, 즉 본래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밀리오리는 “하나님의 내재적[본래적인] 삶은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자신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sup>25)</sup>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경세적 삼위일체와 본래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경세적) 삼위일체의 초월적 근거이며, 경륜적(경세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 삼위일체의 현실”이다.<sup>26)</sup> 십자가에서 나타난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래적 모습 즉, 본래적 삼위일체에 그 뿌리를 둔다. 그러므로 경세적 삼위일체와 본래적 삼위일체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경세적 삼위일체가 본래적 삼위일체이고 본래적 삼위일체가 경세적 삼위일체라 할 수 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본성상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동시에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위에 창조 전부터 본래적으로 사랑 자체로 존재하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신다.

25)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61.

26)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249.

#### IV. 삼위일체 신관의 신학적 의미와 실제적 적용

삼위일체론은 호기심에 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탐구하는 사변적 놀이가 아니다. 삼위일체 신관은 피조물을 향한 지고지순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본질상 사랑으로 존재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정교한 신앙고백이다. 또한, 그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삶의 모형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삶의 최종적 목적으로서 사랑의 본질과 가치를 제공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다. 삼위일체 신관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목회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삼위일체 신관은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속에 나타난 피조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7). 삼위일체론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결과이다. 그렌츠는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이 사실”임을 보여준다고 선언한다.<sup>27)</sup> 밀리오리도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서적 증언”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한다.<sup>28)</sup>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임을 선포한다.<sup>29)</sup> 삼위일체에 관한 논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성찰임을 주목해야한다. 삼위일체론은 십자가 구속사건 속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다. 하

---

27)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92.

28)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59.

29) *Ibid.*, 70.

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드러나 있기에 예수의 십자가위에서 본질상 사랑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조우하게 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피조물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역과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삼위일체 신관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사랑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본성상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적 실체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평등가운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특권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이다.<sup>30)</sup> 밀리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고독한 일자(monad)가 아니라 자유 가운데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이고, 타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권력에의 의지가 아니라 힘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지”라고 말한다.<sup>31)</sup>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건 없이 주고받으며 나누는 절대적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서로의 위격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며,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궁극의 힘”이다.<sup>32)</sup>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적 단독자로서 마구잡이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력자가 아니다. 오히려, 본질상 서로 간에 나누고 협력하는 공동의 힘으로서 절대적 사랑의 힘을 발휘한다. 밀리오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0)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245.

31)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63.

32) Ibid.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도 아니며, 무한한 자기중심주의도 아니며, 거대한 고립자도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은 강제적 힘이 아니라 창조적이며 희생적이고 능력을 주는 사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은 타자를 지배하는 데에 있지 않고 타자와 삶을 나누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요일 4:8)에 적합하고 일치하는 유일한 하나님 이해이다.<sup>33)</sup>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개별적 위격의 관계에 대하여 사용되는 신학적 용어는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순환)”라는 말이다. 페리코레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묘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페리코레스시의 관계 속에 있다. 존 오도넬은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의 관계를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 공유된 의식(*shared consciousness*), 신실한 관계, 서로 주고받는 사랑”등으로 설명한다.<sup>34)</sup> 페리코레스시의 하나님은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환대”한다.<sup>35)</sup>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관계적 실재로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성속에 존재하는 사랑의 실체이다. 페리코레스시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다른 위격에 내어주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sup>36)</sup> 그러나 이때 페리코레스시의 관계가 각각의 위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는 단지 “산술적인 하나(*oneness*)”가 아니라 “구분과 타자성(*otherness*)”이 있다.<sup>37)</sup> 삼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페리코레

---

33) Ibid.

34) John J. O'Donnell, *The Mystery of the Triune God* (London: Sheed & Ward, 1988), 100-111.

35)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70.

36)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257.

시스라면, 각각의 위격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점유(*appropriatio*)이다.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서로 독립적이며(*appropriatio*), 동시에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속에(*perichoresis*) 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상호간의 관계성 속에서 각자의 개체성을 가지며, 각자의 개체성 속에서 상호간의 관계성”이 있다.<sup>38)</sup> 하나님은 존재의 시작부터 고립된 독립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관계적 존재로 공존하는 사랑의 통일체이다. 삼위일체 신관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본성상 사랑 자체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셋째, 삼위일체 신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대적 인간이해는 인간을 고립적이고 독립적 존재로 인식한다. 고립된 존재로서의 한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가 언제나 상대적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빛에서 바라본 인간은 결코 “타자와 철저히 분리하여 규정하는 자기 안에 갇힌 주체(*self-ended subjects*)가 아니다.”<sup>39)</sup>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을 받은 인간은 본질상 관계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립적이면서도 관계적인 것처럼, 인간도 본질상 독립적이면서도 본질상 관계적인 존재임을 나타낸다. 그렌츠의 삼위일체론의 독창성은 하나님을 본질상 관계적 사랑의 존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들도 역시 본질상 사랑의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점이다.<sup>40)</sup>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상 관계적, 사회적 존재

37)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67.

38)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258.

39)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68.

40) 삼위일체의 관계적 신개념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질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까

라는 것은 “피조물들 가운데 포용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원천이 되며 동시에 힘이 된다.”<sup>41)</sup>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원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인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 세상 속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목적을 지닌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인간들의 최종적 목적은 타자와의 다름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관계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존재들과 함께 관계적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데 있다.

수잔 티슬웨이트는 삼위일체론을 다양성을 거부하는 사회적 경향과 연결시킨다. 티슬웨이트는 말하기를, “다양성에 대한 거부... 근대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이 경시되어 온 것”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한다.<sup>42)</sup>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삼위일체 신관을 강조하지 않고 유일신관에 고착하는 것은 다양성을 거부하는 사회적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sup>43)</sup> 삼위일체 하나님이 추구하는 사회는 “지상의 자원을 서로

---

지 나아가는 그렌츠의 신학적 인간론은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다. 보라, Stanley J. Grenz,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Toward a Theology of the Imago Dei in the Postmodern Context,” in *Personal Identity in Theological Perspective*, ed. Richard Lints, Michael S. Horton, and Mark R. Talbot (Oxford, UK: Blakwell, 2007), 72–92; 윤철호, “관계성 안의 이야기적 자아로서의 탈근대적 인간론: 스탠리 그렌츠와 마이클 호튼,” **인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43–71.

41)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69.

42) Susan Thislewaite, *Sex, Race and God: Christian Feminism in Black and White* (New York: Crossroad, 1989), 122.

43) 위르겐 몰트만과 함께 김균진은 기독교가 삼위일체신관을 강조하지 않고 유일신관을 고집하는 것에는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지적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를 비롯한 집정자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한 하나님, 한 교회, 한 교황, 혹은 한 하나님, 한 제국, 그리고 한 황제의 구도 속에서 유일신관 개념을 현존하는 집권 세력의 보호수단과 지배수단으로 이용해 왔음을 지적한다. 김균진은, “삼위

공평하게 나누며, 지배의 관계가 서로 평등한 가운데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이다.<sup>44)</sup>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인간이 우정, 공감, 희생적 사랑, 포용적 공동체 등을 이루는 데에 그 원천과 힘”으로 작용된다.<sup>45)</sup> 레오나르도 보프에 따르면, “인격들 사이의 교제로서 이해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평등한 형제, 자매의 사회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 그렇게 될 때 대화와 합의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의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고 말한다.<sup>46)</sup>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신관은 한 개인의 삶의 지향점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윤리의 단단한 기초를 제공한다. 삼위일체 신관은 서로 다른 문화, 인종,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기독교의 희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sup>47)</sup>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원천”이 된다.<sup>48)</sup> 이와 같이, 삼위일체 신관은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기독교적 사회윤리의 강력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오늘날

---

일체론이 거부하고자 하였던 종속론과 양태론이 그 속에 지니고 있는 일신론적인 뿌리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일적 원리가 되며, 로마의 황제는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황제의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며 로마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한다. 이리하여 한 하나님, 한 황제, 한 교회, 한 제국이라는 단일군주론적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일신론은 이러한 단일군주론적 체제의 종교적 근거가 되었다”고 말한다. 김근진, **기독교조직신학 I**, 245;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129-32.

44)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70.

45)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71.

46)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119-20.

47)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70.

48) Anthony Kelly, *The Trinity of Love: A Theology of the Christian God*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1989), 147-49.

의 교회공동체와 세상이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서로 정죄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관계적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 V. 결론

기독교 전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목회 현장이나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 삶과 유리된 채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삼위일체 신관을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삼위가 일체이든, 사위가 일체이든 혹은 오위가 일체이든 별다른 중요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더 이상 삼위일체론을 화석화된 불가해한 교리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렌츠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주창하듯이, 삼위일체론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살아 있는 교리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신학적 사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증언하는데 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절대적 사랑의 신비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가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자했던 정교한 논리적 시도이다. 몰트만의 말을 빌리면, 기독교의 복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천지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다.<sup>49)</sup>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보리 십자가이다. 십자

가의 구속사역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일체론의 시금석이 된다. 즉, 삼위일체의 논의는 경제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하여 본래적 삼위일체의 담론으로 확장할 때만이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적 삼위일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 속에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언하고, 본래적 삼위일체는 십자가의 구속적 사랑이 우연한 신적 결정이 아니라 본성상 사랑 자체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증언한다. 십자가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막힘이 없고 분리됨이 없는 관계적 사랑의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삼위일체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교회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이해와 목회적 적용을 할 수 있다. 첫째, 삼위일체 신관은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속에 나타난 피조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낸다. 둘째, 삼위일체 신관은 하나님이 본질상 관계적 사랑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본질상 고립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사랑의 존재임을 나타낸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피조물들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심을 고백하게 한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삶의 지향점을 지닌 피조물들은 이 삼위일체 신관을 통해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이 소여된 모든 관계들(하나님, 인간, 자연들)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완성해가는 것임을 천명한다.

---

49) Elizabeth Moltmann and Jürgen Moltmann, *Humanity in God* (New York: Pilgrim Press, 1983), 88.

## 참고자료

-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 오진철. **교회론**. 서울: 누가출판사, 2020.
- 윤철호, “관계성 안의 이야기적 자아로서의 탈근대적 인간론: 스탠리 그렌츠와 마이클 호튼,” **인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43-271.
- Boff, Leonardo. *Trinity and Society*. Maryknoll, N.Y.:Orbis Books, 1988.
- Garrett, James Leo Jr.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 Grenz, Stanley J.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 Grenz, Stanley J.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Toward a Theology of the Imago Dei in the Postmodern Context,” in *Personal Identity in The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Richard Lints, Michael S. Horton, and Mark R. Talbot. Oxford, UK: Blakwell, 2007, 72-92.
-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 Kant, Immanuel.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trans. by Gregor Mary J. New York: Abaris, 1979.
- Kelly, Anthony. *The Trinity of Love: A Theology of the Christian God*.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1989.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Moltmann, Jürge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rans. by Margaret Koh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 Moltmann, Elizabeth and Jürgen Moltmann. *Humanity in God*. New York: Pilgrim Press, 1983.

O'Donnell, J. John. *The Mystery of the Triune God*. London: Sheed & Ward, 1988.

Ott, Heinrich. *Die Antwort des Glaubens*. Stuttgart: Kreuz Verlag, 1972.

Pelikan, Jaroslav.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Thislewaite, Susan. *Sex, Race and God: Christian Feminism in Black and White*. New York: Crossroad, 1989.